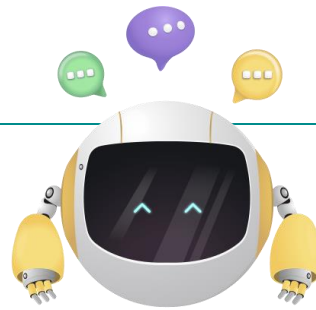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6.26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퀄컴 Investor Day 2026, 모바일을 넘어 AI 컴퓨트 풀스택 기업으로

마이크론(MU.US): SCA 서프라이즈

공급 제한은 풀리기 어려운 상황

- DRAM과 NAND 모두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 타이트한 수급이 CY2027을 넘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 AI 수요가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스마트폰, 고성능 PC, 자동차, 산업용, 로보틱스까지 확산되기 때문. CY2028부터 공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는 있으나, 수요를 따라잡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음
- 현재 공급 제약 요인은 그린필드 fab 건설의 긴 리드타임, 숙련 노동력 부족, 인허가규제, 전력 인프라 필요성, 메모리 공정 복잡도 상승 등. 여기에 노드 전환의 bit growth 둔화, wafer growth를 위한 클린룸 공간 증가, HBM 비율 상승이 non-HBM 공급을 추가로 압박하고 있음. NAND는 추가적으로 일부 공급업체들이 클린룸 공간을 NAND에서 DRAM으로 전환하고 있어 공급 압박이 더욱 심한 구조
- AI 시스템 성능은 GPU/ASIC/CPU 자체뿐 아니라 메모리 서브시스템의 대역폭, 용량, 지연시간, 전력 효율에 구조적으로 의존. 또한 Agentic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가속기 랙에만 머무르지 않고, 에이전트 컨트롤을 위한 컨텍스트 저장 확대를 위한 스토리지 랙으로 확장. 이에 따라 CY2026 서버 출하량 성장률 전망을 기존 low-double-digit에서 high-teens로 상향

수요-가격 하방을 SCA로 묶기 시작

- 총 16건의 SCA(Strategic Customer Agreement)를 체결. 일반적으로 CY2026부터 CY2030 말까지 5년 계약이며, 자동차 고객 계약은 대체로 3년 구조. 현재 체결된 SCA는 해당 기간 DRAM 물량의 약 20%, NAND 물량의 약 1/3을 커버
-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SCA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음. 현재 체결된 계약에는 4개 대형 고객과 3개 중형 고객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주로 자동차 고객 중심의 소형 계약
- SCA는 take-or-pay 구조의 구속력 있는 장기 구매 계약. 대형 계약은 기존 제품에 대해 현재 시장가격 수준의 ceiling price와 계약기간 동안의 floor price를 두는 구조가 일반적. 모든 계획된 SCA가 체결될 경우 고정가 또는 이번 분기 가격에 근접한 ceiling price가 적용되는 매출 비중은 약 40%가 될 전망
- floor price 기준으로도 GPM은 과거 어떤 사이클의 분기 피크 마진보다 훨씬 높은 수준. 16건 중 14건의 계약은 최저 가격 기준 RPO가 약 1,000억 달러

체결된 SCA들로부터 총 220억 달러의 현금 예치금 및 금융 약정을 받을 전망이며, 이 중 약 180억 달러가 현금 예치금. RPO는 최저 물량, 가격 기반의 보수적 회계 수치라서 실제 인식 매출은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기대

퀄컴(QCOM.US): Investor Day 2026, 모바일을 넘어 AI 컴퓨트 풀스택 기업으로

중장기 재무 목표 업데이트

- AI 가속기(HBC)는 6,800억달러 규모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C1000은 2,000억달러 규모 CPU 시장을 타겟으로 함. 데이터센터 전체 TAM은 1조, FY2027 50억달러 매출, FY2029 150억달러 매출, 5~7년 내 5% 초과 점유율을 목표로 제시
- 재무 목표는 비핸드셋(데이터센터+자동차+IoT) 매출 타겟을 18개월 전 FY29 220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2배 상향. FY25→29 CAGR 40%. EPS는 FY29 18달러 이상 목표. 데이터센터 매출은 FY27 50억달러 예상.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2곳이 각각 10억달러 이상 기여할 것으로 보임. FY29 150억달러 목표. 커스텀 실리콘 매출 총이익은 전사보다 약간 낮지만 영업이익 단에서는 전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부문은 FY29 매출 목표를 18개월 전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상향. 순수 자동차 반도체 기업 중 매출 기준 1위에 등극할 것으로 예상
- 핸드셋 비중 FY27 50% 미만, FY29 1/3로 하락 예상. 핸드셋-데이터센터-자동차-산업 IoT로 다변화 하는 것이 목표
- 장기 마진 목표는 칩 사업부(QCT) OPM 30%, 라이선스 사업부(QTL) OPM 70% 수준

통합 AI 생태계 회사로 전환 시도

- 퀄컴은 과거에는 스마트폰 중심 회사였지만, 이제는 데이터센터, 자동차, 산업, 로봇, 개인 기기까지 아우르는 인공지능 생태계 회사로 바꾸는 것이 목표
- 대표적으로 Figure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Dragonwing IQ10은 단순 통신칩이 아니라 로봇의 현장 두뇌 역할에 가까움.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 관성 센서 같은 여러 감지 정보를 받아서 주변을 인식하고, 경로를 판단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기기 안에서 추론하는 역할을 함
-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Modular를 인수. Modular는 여러 종류의 반도체에서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을 만드는 솔루션을 제공. 퀄컴이 Modular를 품으려는 이유는 데이터센터용 칩만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최적화하는 실행 환경까지 가져가려는 것

팔란티어(PLTR:US): 유럽 공공부문 계약 이슈 부각

- 6월 25일 기준 팔란티어는 7거래일 연속 하락, 최근 1주일 17% 하락. 소프트웨어 전반センチ먼트 악화, PLTR 고밸류 부담과 더불어 개별 약재와 수급 촉매 영향이 작용.
- 1) 프랑스 정보기관 DCSI 계약 이탈 이슈. 프랑스 정부가 국내 정보기관 DCSI에서 팔란티어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제외하고 프랑스 업체 ChapsVision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 개별 약재로 작용. 재무적으로는 큰 계약은 아니지만, “유럽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주권/국산화 압력이 커진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 2) 영국 NHS 계약 관련 정치, 규제 리스크. 영국 NHS의 7년 3.3억파운드 규모 FDP 계약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벤더 락인, 외국 기업 의존 논란이 지속. FT는 영국 당국이 2027년 계약 종료/전환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단기 실적 훼손보다는 “해외 시장 공공부문 계약의 정치 리스크”에 대한 우려 부각
- OpenAI, Anthropic 같은 모델 기업들이 정부, 공공 계약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팔란티어 전통적 강점인 정부 AI/데이터 플랫폼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
- 주가가 50일선, 200일선 아래로 밀리고 주요 지지선인 127~128 달러 부근을 깨면서 모멘텀/기술적 매도 신호 강화

스페이스X(SPCX.US): 스타폴(Starfall) 첫 시범 발사 및 배치 성공, 저궤도 화물 회수 플랫폼 시험 착수

- 스페이스X는 6월 23일 신규 무인 재진입 캡슐 Starfall의 첫 시범 발사 진행.
- Starfall은 저궤도 미세중력 환경에서 과학 연구와 우주 제조를 수행하고, 이후 결과물을 지구로 회수하기 위한 무인 재진입 플랫폼. 회사는 이번 임무의 목적을 Starfall의 제어 비행, 통제된 재진입, 태평양 착수 시험이라고 설명.
- 이번 임무는 프로그램 자체만큼이나 비공개 성격이 강했음. 스페이스X는 일반 상업 발사와 달리 Falcon 9 상단부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임무 타임라인도 1단 부스터 착륙 이후 주요 이벤트를 공개하지 않음.
- FAA 환경평가 자료에 따르면 Starfall은 두 개 구성요소 합산 약 2,100kg 규모이며 약 1,000kg의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향후 Falcon 9 또는 Starship을 활용한 추가 시험 가능성도 언급.
- 아직 초기 시험 단계지만, 향후 우주 내 제조, 제약, 국방용 신속 화물 회수 등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옵션 가치가 있는 이벤트로 판단
- Starfall은 스페이스X가 단순 발사 사업자를 넘어 “발사-궤도 체류-재진입-회수”까지 포괄하는 우주 물류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

글로벌 에너지

‘풍력발전 금지 행정명령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 신청 철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풍력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으나 최근 입장을 번복
-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가 추진되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풍력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 2기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연방 영해 내의 신규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무기한 금지했으며 기존 프로젝트에도 작업 중단 행정명령
- 2025년 12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며 트럼프는 항소했으나, 6월 10일 다시 항소를 자진취하
- 트럼프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특정 에너지원을 편애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으며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조인 Energy Expansion을 증명하는 사례

미국에서 풍력의 입지

- 2025년 미국은 풍력 발전으로 464,000GWh(YoY +3%)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는 전체 전력 생산 비중의 약 10%에 해당
- 다만 지리적 특성의 차이로 해상 풍력이 발달한 유럽과 달리 미국은 대부분이 텍사스, 뉴멕시코 등 내륙 지역의 육상풍력이며 해상풍력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

- Coastal Virginia Offshore Wind(CVOW) 프로젝트는 미국 최대 규모(2.6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이며 총 176기의 지멘스가메사 14.7MW급 터빈을 사용
트럼프 행정부가 CVOW 프로젝트에 전면 공사 중단을 명령한 이후 개발사인 도미니언 에너지는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결론적으로 법원은 도미니언 에너지의 손을 들어주었고 2027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어

태양광은 Section 232가 예상보다 늦어져

- 트럼프가 신재생 내에서 풍력보다 선호했던 태양광의 경우 Section 232가 이르면 6월 중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시점이 최근 시점이 8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
- 비중국 밸류체인인 가격 상승이라는 투자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나 단기적 섀티는 악화될 가능성
- 그동안 풍력은 OBBBA 안에서 태양광보다도 찬밥 신세였다. 45X 태양광 부품의 세액공제는 2030년까지 완만히 감소하는 반면 풍력 터빈과 해상풍력 부품은 2027년부터 전면 중단
- 따라서 이번 트럼프의 향소 취하는 신재생 섹터 내에서 주목해볼 만한 지각 변동

AI/플랫폼

알파벳(GOGL.US): 구글 AI 핵심 인력 이탈 가속화

- 이번주 구글의 Gemini 개발에 관련한 핵심 AI 연구자 Jonas Adler와 Alexander Pritzel이 앤스로픽으로 이직할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이직은 오픈AI와 앤스로픽이 IPO를 준비하는 국면에서 지분 보상을 앞세워 최상위 연구 인력을 흡수하는 구조적 흐름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세브론과 2.67GW 가스발전 프로젝트 시작

- 마이크로소프트와 세브론은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2.67GW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킬비'를 추진할 계획

메타(META.US): 예측시장 앱 및 저가형 AI 글래스 출시 예정

-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 내부에서 폴리마켓 유사 예측시장 앱 'Arena'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기 구상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기존 소셜 서비스와 분리된 독립 앱이지만 메타의 소셜 트래픽을 유입 채널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브로드컴(AVGO.US): 오픈AI Jalapeño ASIC 공개

- 오픈AI와 브로드컴이 공동 설계한 첫 AI 추론용 칩 'jalapeño'가 공개. 이 칩은 ChatGPT·Codex 같은 LLM 서비스의 응답 처리, 즉 추론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로, 오픈AI는 연말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브로드컴 CEO는 성능이 엔비디아 Blackwell 및 구글 TPU와 견줄 수 있다고 언급

퀄컴(QCOM.US): Modular 인수로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빈틈 보강

- Modular는 AI 모델을 CPU·GPU·NPU·커스텀 ASIC 등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별도 재작성 없이 구동하도록 돕는 AI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스택을 보유. 퀄컴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엣지 AI와 데이터센터 추론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개발자 생태계 확보 가능

앤스로픽(비상장): 알리바바 클라우드 '디스틸레이션' 의혹 제기

- 앤스로픽은 알리바바 및 알리바바 AI 연구조직 큐엔과 연계된 운영자들이 약 2만5,000개의 허위 계정을 통해 4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클라우드와 2,880만 건 이상의 상호작용을 발생시켰으며, 이를 통해 클라우드의 고도화된 추론·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장기 과제 수행 능력을 추출하려 했다고 주장

오픈AI(비상장): 'Patch the Planet'으로 오픈소스 보안 생태계 진입

- 오픈AI는 보안 엔지니어링 기업 Trail of Bits와 함께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취약점 탐지·검증·패치 개발을 지원하는 'Patch the Planet' 이니셔티브를 공개. 핵심은 Codex Security와 고성능 사이버 보안 모델을 활용해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전문가가 결과를 검증한 뒤 패치·테스트·공개 절차까지 지원하는 구조

우주/로봇

스페이스X(SPCX.US): 채권 발행 및 신규 컴퓨팅 계약 체결

- 스페이스X는 IPO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첫 투자등급 회사채 발행에 나서 250억달러를 조달했으며, 시장 수요는 약 850억~900억달러 수준으로 발행 규모를 크게 상회. 조달 자금은 기존 브리지론 상환과 일반 기업 목적에 사용될 예정

테슬라(TSLA.US): 텍사스 사망사고로 FSD 책임 공방 확대

-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텍사스 케이티에서 테슬라 모델3가 주택을 들이받아 76세 거주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별도로 조사 중. 피해자 유족은 운전자 Michael Butler와 테슬라를 상대로 과실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지 당국에는 운전자가 사고 전 테슬라의 운전자보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전달

어질리티 로보틱스(비상장): 25억 달러 SPAC 상장 추진

-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Agility Robotics가 Churchill Capital Corp X와의 SPAC 합병을 통해 상장을 추진하며, 거래 후 기업가치는 약 25억 달러, 예상 조달금은 6억2,000만 달러 이상

마이크론

상장 국가	미국	최근 주가 추이
산업	반도체	(USD) 1,500 1,000 500 0 25.6 25.8 25.10 25.12 26.2 26.4 26.6
시가총액(십억달러)	1,370	
마이크론(MU.US): SCA 서프라이즈		

주요 지표

- 3분기 매출 매출 414.6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358.2억 달러 대비 +15.7% 상회. Non-GAAP EPS는 25.11달러로 시장 예상치 20.71달러 대비 +21.3% 상회
- DRAM은 비트 출하가 QoQ low-single-digit 증가에 그쳤으나 가격이 low-60% 상승. NAND도 비트 출하가 mid-single-digit 증가에 그쳤으나 가격이 mid-80% 상승
- GPM은 84.9%로 QoQ +10%p 개선, 사상 최고치. OPM은 81.2%로 QoQ +12%p, YoY +54%p 개선
- 사업부별 매출은 Cloud Memory 138억 달러, Core Data Center 115억 달러, Mobile & Client 115억 달러, Automotive & Embedded 46억 달러. 각 사업부 GPM은 각각 83%, 87%, 87%, 79%
- 4분기 가이드는 매출 500억 달러 ±10억 달러, GPM 약 86%, EPS 31달러 ±1달러. 이는 시장 예상치 매출 437억 달러, EPS 25.68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공급 제약, CY27년 이후에도 해소 어려워

- DRAM과 NAND 모두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 타이트한 공급이 CY2027을 넘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 AI 수요가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스마트폰, 고성능 PC, 자동차, 산업용, 로봇틱스까지 확산되기 때문. CY2028부터 공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는 있으나, 수요를 따라잡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음
- 현재 공급 제약 요인은 그린필드 fab 건설의 긴 리드타임, 숙련 노동력 부족, 인허가·규제, 전력 인프라 필요성, 메모리 공정 복잡도 상승 등. 여기에 노드 전환의 bit growth 둔화, wafer growth를 위한 클린룸 공간 증가, HBM 비율 상승이 non-HBM 공급을 추가로 압박하고 있음. NAND는 추가적으로 일부 공급업체들이 클린룸 공간을 NAND에서 DRAM으로 전환하고 있어 공급 압박이 더욱 심한 구조
- AI 시스템 성능은 GPU/ASIC/CPU 자체뿐 아니라 메모리 서브시스템의 대역폭, 용량, 지연시간, 전력 효율에 구조적으로 의존. 또한 Agentic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가속기 랙에만 머무르지 않고, 에이전트 컨트롤을 위한 컨텍스트 저장 확대를 위한 스토리지 랙으로 확장. 이에 따라 CY2026 서버 출하량 성장을 전망을 기존 low-double-digit에서 high-teens로 상향

SCA 확대로 메모리 수요 & 가격 하방 방어

- 총 16건의 SCA(Strategic Customer Agreement)를 체결. 일반적으로 CY2026부터 CY2030 말까지 5년 계약이며, 자동차 고객 계약은 대체로 3년 구조. 현재 체결된 SCA는 해당 기간 DRAM 물량의 약 20%, NAND 물량의 약 1/3을 커버
-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SCA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음. 현재 체결된 계약에는 4개 대형 고객과 3개 중형 고객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주로 자동차 고객 중심의 소형 계약
- SCA는 take-or-pay 구조의 구속력 있는 장기 구매 계약. 대형 계약은 기존 제품에 대해 현재 시장가격 수준의 ceiling price와 계약기간 동안의 floor price를 두는 구조가 일반적. 모든 계획된 SCA가 체결될 경우 고정가 또는 이번 분기 가격에 근접한 ceiling price가 적용되는 매출 비중은 약 40%가 될 전망
- floor price 기준으로도 GPM은 과거 어떤 사이클의 분기 피크 마진보다 훨씬 높은 수준. 16건 중 14건의 계약은 최저 가격 기준 RPO가 약 1,000억 달러
- 체결된 SCA들로부터 총 220억 달러의 현금 예치금 및 금융 약정을 받을 전망이며, 이 중 약 180억 달러가 현금 예치금. RPO는 최저 물량, 가격 기반의 보수적 회계 수치라서 실제 인식 매출은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기대

퀄컴

상장 국가	최근 주가 추이
미국	(USD)
산업	1,500
반도체	1,000
시가총액(십억달러)	500
216	0
	25.6 25.8 25.10 25.12 26.2 26.4 26.6

퀄컴(QCOM.US): Investor Day 2026, 모바일을 넘어 AI 컴퓨터 풀스택 기업으로

데이터센터용 칩 시장 정조준

- 데이터센터용 플랫폼은 Qualcomm Dragonfly임. Dragonfly는 Agentic AI 시대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로, 단순 FLOPS 경쟁이 아니라 와트 당 토큰, 전력 효율, TCO를 중심으로 설계
- 핵심 기술로는 HBC(High Bandwidth Compute)를 제시. 기존 HBM 기반 구조가 메모리 병목과 전력 소모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XPU를 DRAM 가까이 배치하는 near-memory compute 구조를 제시. 이를 통해 SRAM 대비 와트당 메모리 용량을 크게 높이고, HBM 기반 경쟁 솔루션 대비 와트당 대역폭도 개선. 2027년 중반 AI250을 내놓고, 2028년에는 2세대 HBC 기반 제품인 AI300을 출시할 예정
- CPU 쪽에서는 퀄컴 C1000이 공개됨. 제품군도 Agentic CPU, general purpose CPU, AI headnode CPU로 나눠서 출시. Meta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서버에 퀄컴 CPU를 쓰는 다년간의 협약을 체결
- 광학-커넥티비티는 25년 약 24억 달러에 인수한 Alpha Wave를 기반으로 함. Alphawave 공동창업자 겸 CEO Tony Pialis가 데이터센터 사업을 이끌 예정. AI 컴퓨터가 2년마다 2배 늘면 커넥티비티 수요도 2배 증가함. 퀄컴은 Alphawave 기반으로 die-to-die부터 CPO(co-packaged optics), PAM4 전기-광 SerDes/DSP, 풀 스택 제품 보유. CPO-실리콘 포토닉스(Alphawave에서 5년 이상 개발)는 AI300(2028년)에 1세대 탑재해 scale-out부터 광학으로 전환하고, scale-up은 그 이후 적용 예정

중장기 재무 목표 업데이트

- AI 가속기(HBC)는 6,800억달러 규모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C1000은 2,000억달러 규모 CPU 시장을 타겟으로 함. 데이터센터 전체 TAM은 1조, FY2027 50억달러 매출, FY2029 150억달러 매출, 5~7년 내 5% 초과 점유율을 목표로 제시
- 재무 목표는 비핸드셋(데이터센터+자동차+IoT) 매출 타겟을 18개월 전 FY29 220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2배 상향. FY25→29 CAGR 40%. EPS는 FY29 18달러 이상 목표. 데이터센터 매출은 FY27 50억달러 예상.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2곳이 각각 10억달러 이상 기여할 것으로 보임. FY29 150억달러 목표. 커스텀 실리콘 매출 총이익은 전사보다 약간 낮지만 영업이익 단에서는 전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부문은 FY29 매출 목표를 18개월 전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상향. 순수 자동차 반도체 기업 중 매출 기준 1위에 등극할 것으로 예상
- 핸드셋 비중 FY27 50% 미만, FY29 1/3로 하락 예상. 핸드셋-데이터센터-자동차-산업 IoT로 다변화 하는 것이 목표
- 장기 마진 목표는 칩 사업부(QCT) OPM 30%, 라이선스 사업부(QTL) OPM 70% 수준

통합 AI 생태계 회사로 전환 시도

- 퀄컴은 과거에는 스마트폰 중심 회사였지만, 이제는 데이터센터, 자동차, 산업, 로봇, 개인 기기까지 아우르는 인공지능 생태계 회사로 바꾸는 것이 목표
- 대표적으로 Figure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Dragonwing IQ10은 단순 통신칩이 아니라 로봇의 현장 두뇌 역할에 가까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관성 센서 같은 여러 감지 정보를 받아서 주변을 인식하고, 경로를 판단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기기 안에서 추론하는 역할을 함
-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Modular를 인수. Modular는 여러 종류의 반도체에서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을 만드는 솔루션을 제공. 퀄컴이 Modular를 품으려는 이유는 데이터센터용 칩만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최적화하는 실행 환경까지 가져가려는 것

팔란티어

상장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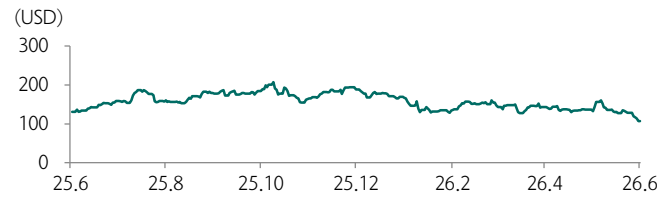
산업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십억달러)

257

최근 주가 추이



유럽 공공부문 계약 이슈 부각

- 6월 25일 기준 팔란티어는 7거래일 연속 하락, 최근 1주일 17% 하락. 소프트웨어 전반センチ먼트 악화, PLTR 고밸류 부담과 더불어 개별 악재와 수급 촉매 영향이 작용.
- 1) 프랑스 정보기관 DCSI 계약 이탈 이슈. 프랑스 정부가 국내 정보기관 DCSI에서 팔란티어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제외하고 프랑스 업체 ChapsVision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 개별 악재로 작용. 재무적으로는 큰 계약은 아니지만, “유럽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주권/국산화 압력이 커진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 2) 영국 NHS 계약 관련 정치, 규제 리스크. 영국 NHS의 7년 3.3억파운드 규모 FDP 계약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벤더 락인, 외국 기업 의존 논란이 지속. FT는 영국 당국이 2027년 계약 종료/전환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단기 실적 훼손보다는 “해외 시장 공공부문 계약의 정치 리스크”에 대한 우려 부각
- OpenAI, Anthropic 같은 모델 기업들이 정부, 공공 계약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팔란티어 전통적 강점인 정부 AI/데이터 플랫폼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
- 주가가 50일선, 200일선 아래로 밀리고 주요 지지선인 127~128 달러 부근을 깨면서 모멘텀/기술적 매도 신호 강화

스페이스X

상장 국가	미국	최근 주가 추이
산업	우주	(USD)
시가총액(십억달러)	2,015	
스타폴(Starfall) 첫 시범 발사 및 배치 성공, 저궤도 화물 회수 플랫폼 시험 착수		

- 스페이스X는 6월 23일 신규 무인 재진입 캡슐 Starfall의 첫 시범 발사 진행.
- Starfall은 저궤도 미세중력 환경에서 과학 연구와 우주 제조를 수행하고, 이후 결과물을 지구로 회수하기 위한 무인 재진입 플랫폼. 회사는 이번 임무의 목적을 Starfall의 제어 비행, 통제된 재진입, 태평양 착수 시험이라고 설명.
- 이번 임무는 프로그램 자체만큼이나 비공개 성격이 강했음. 스페이스X는 일반 상업 발사와 달리 Falcon 9 상단부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임무 타임라인도 1단 부스터 착륙 이후 주요 이벤트를 공개하지 않음.
- FAA 환경평가 자료에 따르면 Starfall은 두 개 구성요소 합산 약 2,100kg 규모이며 약 1,000kg의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향후 Falcon 9 또는 Starship을 활용한 추가 시험 가능성도 언급.
- 아직 초기 시험 단계지만, 향후 우주 내 제조, 제약, 국방용 신속 화물 회수 등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옵션 가치가 있는 이벤트로 판단
- Starfall은 스페이스X가 단순 발사 사업자를 넘어 “발사-궤도 체류-재진입-회수”까지 포괄하는 우주 물류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

글로벌 에너지

트럼프의 올머 겨자(풍력) 먹기

‘풍력발전 금지 행정명령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 신청 철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풍력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으나 최근 입장을 번복
-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가 추진되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풍력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 2기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연방 영해 내의 신규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무기한 금지했으며 기존 프로젝트에도 작업 중단 행정명령
- 2025년 12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며 트럼프는 항소했으나, 6월 10일 다시 항소를 자진취하
- 트럼프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특정 에너지원을 편애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으며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조인 Energy Expansion을 증명하는 사례

미국에서 풍력의 입지

- 2025년 미국은 풍력 발전으로 464,000GWh(YoY +3%)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는 전체 전력 생산 비중의 약 10%에 해당
- 다만 지리적 특성의 차이로 해상 풍력이 발달한 유럽과 달리 미국은 대부분이 텍사스, 뉴멕시코 등 내륙 지역의 육상풍력이며 해상풍력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
- Coastal Virginia Offshore Wind(CVOW) 프로젝트는 미국 최대 규모(2.6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이며 총 176기의 지멘스가메사 14.7MW급 터빈을 사용

트럼프 행정부가 CVOW 프로젝트에 전면 공사 중단을 명령한 이후 개발사인 도미니언 에너지는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결론적으로 법원은 도미니언 에너지의 손을 들어주었고 2027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어

태양광은 Section 232가 예상보다 늦어져

- 트럼프가 신재생 내에서 풍력보다 선호했던 태양광의 경우 Section 232가 이르면 6월 중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시점이 최근 시점이 8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
- 비중국 밸류체인인 가격 상승이라는 투자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나 단기적 선택은 악화될 가능성
- 그동안 풍력은 OBBBA 안에서 태양광보다도 찬밥 신세였다. 45X 태양광 부품의 세액공제는 2030년까지 완만히 감소하는 반면 풍력 터빈과 해상풍력 부품은 2027년부터 전면 중단
- 따라서 이번 트럼프의 항소 취하는 신재생 섹터 내에서 주목해볼 만한 지각 변동

AI/플랫폼

알파벳(GOOG.US): 구글 AI 핵심 인력 이탈 가속화

- 최근 구글 핵심 AI 인력의 경쟁사 이동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음. 지난주 2000년부터 구글에 몸담았고 Character.AI 창업 후 다시 구글로 복귀했던 Noam Shazeer가 OpenAI로 떠났으며, AlphaFold 연구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Google DeepMind의 John Jumper도 앤스로픽행을 밝힌바 있음
- 이번주 구글의 Gemini 개발에 참여한 핵심 AI 연구자 Jonas Adler와 Alexander Pritzel이 앤스로픽으로 이직할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이직은 오픈AI와 앤스로픽이 IPO를 준비하는 국면에서 지분 보상을 앞세워 최상위 연구 인력을 흡수하는 구조적 흐름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세브론과 2.67GW 가스발전 프로젝트 시작

- 마이크로소프트와 세브론은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2.67GW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킬비'를 추진할 계획
- 사업 구조는 세브론 측이 자회사 에너지 포지 윈 및 투자사 엔진 넘버원과 함께 데이터센터 인근에 가스발전 설비를 개발하고, GE 버노바와 캐터필러 자회사 솔라 터빈스의 터빈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 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20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으로 사가는 형태

메타(META.US): 예측시장 앱 및 저가형 AI 글래스 출시 예정

-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 내부에서 폴리마켓 유사 예측시장 앱 'Arena'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기 구상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기존 소셜 서비스와 분리된 독립 앱이지만 메타의 소셜 트래픽을 유입 채널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콘셉트는 현금 베틱이 아닌 포인트 기반 게임형 구조로, 규제 부담을 낮추면서 사용자 참여도와 체류시간을 테스트하려는 전략
- 자체 브랜드 'Meta Glasses'를 출시 예정. 신제품은 299달러부터 시작해 기존 2세대 Ray-Ban Meta 대비 진입가격을 낮췄고, Adventurer-Fury-Kylie Jenner 협업 모델 등 3개 프레임과 총 26개 스타일, 도수 렌즈 호환성을 앞세워 기능성뿐 아니라 패션-착용성을 강화
-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카메라, 오픈이어 스피커, 멀티 마이크, 핸드프리 촬영, 통화, 음악 재생, 실시간 번역, Muse Spark 기반 Meta AI 기능을 제공하며, 8시간 이상 배터리와 최대 40시간 추가 충전 케이스를 지원

브로드컴(AVGO.US): 오픈AI Jalapeño ASIC 공개

- 오픈AI와 브로드컴이 공동 설계한 첫 AI 추론용 칩 'Jalapeño'가 공개. 이 칩은 ChatGPT-Codex 같은 LLM 서비스의 응답 처리, 즉 추론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로, 오픈AI는 연말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브로드컴 CEO는 성능이 엔비디아 Blackwell 및 구글 TPU와 견줄 수 있다고 언급

퀄컴(QCOM.US): Modular 인수로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빈틈 보강

- Modular는 AI 모델을 CPU-GPU-NPU-커스텀 ASIC 등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별도 재작성 없이 구동하도록 돕는 AI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스택을 보유. 퀄컴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엣지 AI와 데이터센터 추론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개발자 생태계 확보 가능
- 거래 규모는 약 39억~40억 달러, 대가는 최대 1,920만 주의 퀄컴 주식으로 지급되는 구조

앤스로픽(비상장): 알리바바 클라우드 '디스틸레이션' 의혹 제기

- 앤스로픽은 알리바바 및 알리바바 AI 연구조직 큐웬과 연계된 운영자들이 약 2만5,000개의 허위 계정을 통해 4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클라우드와 2,880만 건 이상의 상호작용을 발생시켰으며, 이를 통해 클라우드의 고도화된 추론-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장기 과제 수행 능력을 추출하려 했다고 주장
- 디스틸레이션은 더 강력한 모델의 출력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앤스로픽은 이번 사안을 중국 AI 업체들이 미국 프런티어 모델의 성능을 낮은 비용으로 복제하려는 산업적 규모의 기술 탈취 시도로 규정

오픈AI(비상장): 'Patch the Planet'으로 오픈소스 보안 생태계 진입

- 오픈AI는 보안 엔지니어링 기업 Trail of Bits와 함께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취약점 탐지-검증-패치 개발을 지원하는 'Patch the Planet' 이니셔티브를 공개. 핵심은 Codex Security와 고성능 사이버 보안 모델을 활용해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전문가가 결과를 검증한 뒤 패치-테스트-공개 절차까지 지원하는 구조

우주/로봇

스페이스X(SPCX.US): 채권 발행 및 신규 컴퓨팅 계약 체결

- 스페이스X는 IPO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첫 투자등급 회사채 발행에 나서 250억달러를 조달했으며, 시장 수요는 약 850억~900억달러 수준으로 발행 규모를 크게 상회. 조달 자금은 기존 브리지론 상환과 일반 기업 목적에 사용될 예정
- 오픈소스 AI 스타트업 Reflection AI에 Colossus 2 데이터센터의 Nvidia GB300 기반 연산자원을 제공하는 대형 컴퓨트 계약을 체결. Reflection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까지 월 1억5,0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며,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총액은 약 63억 달러에 달하지만 최초 3개월 이후에는 양측 모두 90일 이전 통지로 종료할 수 있는 구조

테슬라(TSLA.US): 텍사스 사망사고로 FSD 책임 공방 확대

-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텍사스 케이티에서 테슬라 모델3가 주택을 들이받아 76세 거주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별도로 조사 중. 피해자 유족은 운전자 Michael Butler와 테슬라를 상대로 과실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지 당국에는 운전자가 사고 전 테슬라의 운전자보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전달
- 테슬라는 차량 데이터상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까지 밟아 자율주행 기능을 수동으로 덮어썼고, 충돌 전 속도가 시속 73마일까지 올라갔으며 FSD가 사고 원인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음
- 아직 테슬라가 관련 로그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NTSB와 NHTSA 조사를 통해 차량 컴퓨터 기록이 확인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

어질리티 로보틱스(비상장): 25억 달러 SPAC 상장 추진

-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Agility Robotics가 Churchill Capital Corp XI와의 SPAC 합병을 통해 상장을 추진하며, 거래 후 기업가치는 약 25억 달러, 예상 조달금은 6억2,000만 달러 이상
- Agility는 오리건주립대에서 분사한 회사로, 물류·제조 현장에서 반복적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양족보행 로봇 'Digit'으로 알려져 있으며 Schaeffler, GXO, Toyota Motor Manufacturing Canada, Mercado Libre 등 9개 고객 사이트에서 이미 상업 운용 경험을 확보
- 조달 자금은 차세대 모델 Digit v5 생산 확대, 기존 주문 이행, 신규 고객 배치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며, 회사는 Digit v5에 대해 3억 달러 이상의 다년 주문과 30곳 이상의 잠재 고객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고 밝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2026년 6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